

폴란드, 최근 경제동향 및 교역현황

<표 1> 동유럽 4개국의 주요 경제지표 비교  
(2007년 기준)

(금액단위: 억 달러, %)

	폴란드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GDP	4,238	1,340	1,712	1,639
인구(백만 명)	38.1	10.0	10.2	21.6
1인당 GDP	11,123	13,400	16,784	7,588
경제성장률	6.5	1.7	6.0	5.8
실업률	12.8	7.4	6.6	4.5
소비자물가상승률	2.5	8.0	2.9	4.8
재정수지/GDP	△1.4	△5.6	△2.5	△2.5
상품수출	1,455	899	1,184	394
상품수입	1,576	886	1,145	641
경상수지/GDP	△3.6	△5.5	△3.7	△14.2
총외채잔액	1,686	1,131	701	722
환율(연평균,달러)	2.77	183.6	20.29	2.44

자료: EIU, Country Report 및 Country Profile 2008.

1. 경제동향 및 전망

<표 2> 폴란드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전년대비 증감비율: %)

	2006	2007	2008f
경제성장률	6.2	6.5	5.1
소비자물가상승률	1.0	2.5	3.6
재정수지/GDP	△2.4	△1.4	△1.7

자료: EIU, Country Report 2008.

(1) 경제성장

- 공산주의 체제 몰락을 전후한 1989-91년의 급격한 경기침체 이후 폴란드 경제는 1992년부터 점차 회복되기 시작하여 1995년에는 경제성장률이 7%대에

달하였음. 그러나 1998년 러시아 재정위기로 인한 긴축통화정책 등으로 경제 성장 속도는 지연되었으며, 이 같은 추세는 2000년에 들어서도 지속됨.

- 2005년 이후 제조업, 광업 및 공공부문의 생산증가율이 두드러졌으며, 이는 수출호조 및 자본투자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특히, EU 가입으로 수출여건이 개선되고 경제성장이 활력을 되찾으면서 기계 및 설비 등 자본재 산업의 생산증가율이 현저한 상승추세를 보였음.
- 2006년에는 주요 수출대상국(유로존)의 경기호조로 인한 수출증대, 실질임금 상승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증대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6.2%를 기록함.
- 2007년 상반기에는 건설(주택) 및 유통부문, 고정자본투자 및 민간소비 부문의 급성장으로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높은 7.1%를 기록하였으나,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성장률은 둔화되어 연중 경제성장률은 6.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08년에는 해외 수입수요 약화, 긴축통화정책으로 인한 내수 위축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5%대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실질임금 상승과 노동시장 여건 개선으로 민간소비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나, 긴축통화정책 시행 및 임금상승에 따른 기업의 수익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투자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분석됨.

## (2) 소비자물가

- 폴란드 통화당국은 1996-97년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경상수지 적자 확대를 억제하기 위하여 긴축통화정책을 시행하였음. 2001-03년 소비자물가는 급격하게 하락하였는데, 이는 긴축통화정책의 효과, 내수 침체, 농작물 작황 호전, 국제유가 하락 등에 따른 결과임.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3년 4월에 0.3%로 최저수준을 기록하였으나, 2004년에는 2003년의 농산물 작황 부진, 국제유가의 급등, 일부 식료품 가격 상승과 폴란드의 EU 가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가대상 품목 확대(건축자재 등)로 연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6%로 상승하였음.
- 2005년 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식료품 가격 안정세, 통화 강세 및 임금상승률 둔화로 2.1%로 전년에 비해 상승률이 둔화됨. 특히, 2005년 말 러시아 정

부가 폴란드의 식료품 수입제한 조치로 폴란드 식품 생산업체들이 자국내 시장 판매를 늘리면서 식료품 가격이 급락함.

- 2006년에는 농산물 작황부진으로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통화강세 지속, 3분기 이후 국제유가 하락으로 연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를 기록하였으며, 2007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5%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소매 판매실적 증가, 임금 상승 및 고용 증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2008년에는 영국 등 EU 회원국으로의 근로자 이주에 따른 실업자 감소 등으로 가속화된 실질임금 상승, 생물연료(biofuels) 수요 증대 등에 기인한 식료품가격 인상 등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6%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3) 재정상황

- 2001년부터 경제성장률 둔화, 재정지출 통제 미흡으로 재정수지 적자는 폴란드의 주요 경제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재정수지 적자는 정부채무 누적의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였음.
  - 2003년 중반 공적채무(public debt)는 GDP 대비 55% 수준을 상회하여 GDP 대비 60% 이내로 억제하려고 폴란드 정부는 긴급 재정조치를 취함. 그 결과, 공적채무는 GDP 대비 2003년 말 51.1%, 2004년 말 50.3%로 점차 하락세를 나타냄.
  - 2005년 중 실시된 총선과 대선에서 정치 캠페인에 따른 재정지출 증대가 우려되었으나,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증가로 재정수입이 예상대비 3% 증가한 반면, 재정지출은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계획대비 0.9% 감소하여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당초 예상한 350억 Zloty(재정수지 적자 목표치)보다 적은 275억 Zloty(GDP의 2.9%) 수준으로 감소함.
- 2006년에는 예상보다 높은 경제성장률로 인한 세수증대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GDP 대비 2.4%로 개선됨. 2007년에는 7월부터 발효되는 사회보장 부담금 감축으로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따르지만 예상치를 상회하는 경제성장률 달성에 힘입어 연말 기준으로 재정수지 적자는 정부의 재정적자 목표치인 300억 Zloty(107억 달러)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추정됨.
- 폴란드의 국내저축률이나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을 제외하면, 산업생산이나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재정지출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이나 EU 가입에 따

른 재정수혜 효과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됨.

- EU 가입 이전 폴란드가 EU로부터 받은 원조는 PHARE 기금(투자관련 제도구축비용 지원), ISPA 기금(환경 및 교통투자 지원), SAPARD 기금(농업 및 낙후지역개발 지원)에 국한되었음.
- EU 가입 이후에는 폴란드는 EU의 농업기금(Agricultural Funds), 구조기금(Structural Funds) 및 결속기금(Cohesion Funds)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발생함.
- 2007년 10월에 실시된 조기총선 결과, 집권한 시민강령당(PO당)은 폴란드농민당(PSL)과 연정으로 당분간 의회 과반수 의석을 통한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며, 신정부는 보다 신자유노선의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급진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친 기업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자유주의 성향의 PO당은 EU 통합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독일 등 주변국가와의 관계개선, 경제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완화 등의 경제개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됨.

## 2. 교역현황

<표 3> 폴란드 주요 대외거래지표 추이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

	2006	2007	2008f
상 품 수 출	117,468	145,536	171,193
상 품 수 입	124,472	157,563	186,616
대외지급준비자산	48,484	65,746	72,669
경상수지/GDP	△3.2	△3.6	△4.1

자료: EIU, Country Report 2008.

- 1980년대 폴란드의 주요 수출산업은 전기 및 기계 엔지니어링 부문으로 수출 총액의 43%를 차지함. 이런 비중은 공산주의 체제하의 역내 무역지대 역할을 하였던 코메콘(CMEA)이 붕괴되면서 급락하였음.
- 전통적으로 원자재, 반가공품의 수출 국가였던 폴란드는 1990년대 들어 금속, 목재 및 가구산업의 수출이 급증하기 시작한 반면, 연료 및 광물, 식료품 및 농산물의 수출은 오히려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남.

- 2005년 중 EU의 경제성장 둔화 및 자국통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유로화 기준으로 대 EU 수출실적이 전년 대비 16.8% 증가한 점은 고무적이지만 여타 지역에 대한 수출실적이 급성장하면서 대 EU 교역비중은 상대적으로 하락함 (수출과 수입비중은 각각 66%, 77%로 근소하게 하락한 것으로 추정).
- 폴란드의 대 EU 무역은 1991년 EU 가입협상(SAA) 체결 이후 실질적으로 증가하여 왔음. 즉, 기존 EU 생산업체들이 폴란드 시장에 진입하는 것보다 오히려 폴란드 생산업체들에게 EU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폴란드 기업들은 서부 유럽 업체들과의 경쟁체제 이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
  - 1999년 초부터 EU와의 자유무역지대(FTA)가 대부분의 산업제품에 적용이 되었으나, 농산물 거래 자유화는 점진적인 개방과정을 거쳐 EU 가입 이후에 비로소 완료됨. EU 가입으로 통신, 연료, 에너지 및 금융 등의 서비스산업 개방으로 외국기업과의 완전 경쟁체제로 변모함.
- 제조상품의 대외무역은 폴란드의 EU 가입 이전에 이미 무역통제가 철폐된 상태였으며, EU 회원국은 대 폴란드 무역패턴에서 갑작스런 변화를 보이지 않았음. 그러나 대 EU 시장에 대한 폴란드 수출실적이 평균 증가율보다도 낮은 기록을 보였지만, 낙농제품 등의 특정 식품산업은 EU 가입 이후 상당한 이득을 본 것으로 파악됨.
  - EU 가입으로 폴란드의 대 러시아 수출은 2004년도에 77%(Zloty 기준)나 증가하였는데, 이는 폴란드가 EU의 수출보조금 수혜자격의 신규획득으로 농산물 수출의 비-EU 시장에 대한 경쟁력 강화에 주로 기인함.

**<표 4> 폴란드의 주요 무역상대국 비중  
(2006년 기준)**

수출상대국	독일(27.1%), 프랑스(6.4%), 이탈리아(6.3%), 영국(5.7%)
수입상대국	독일(23.8%), 러시아(9.7%), 이탈리아(6.7%), 중국(6.1%)

자료: EIU, Country Report 2008.

- 1990년 체제전환 당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하여 미 달러화 대비 고정환율제도가 시행되었고, 1991년에는 제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동적인 crawling-peg 시스템을 채택함. 1990년대 후반 들어 Zloty의 변동폭을 점차 확대해오다가 2000년 4월 자유변동 환율제도를 전면 시행함.

- 유로화의 가치하락(폴란드 외화 보유자산은 대부분 유로화로 구성)으로 외환 보유액은 2005년 말 현재 42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말의 353억 달러에 비해 73억 달러에 그친 것으로 파악됨.
- 폴란드 경상수지 추세는 상품수지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으며, 1999-2005년 중 경상수지 적자가 빠르게 축소되어 왔음.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1999년 7.6%에서 2005년에는 1.6% 수준으로 급감하였음.
- 2006년에는 통화강세에도 불구하고 주변국 경제성장에 따른 수입수요 회복으로 수출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자본재 수입증가로 인한 상품수지 적자폭 확대, 외국인투자자의 해외송금 증가에 따른 소득수지 적자폭 증가 등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가 3.2% 수준으로 다시 악화됨.
- 2007년에는 경상수지가 전년에 비해 악화되었으나 FDI 유입증대로 대외거래 적자포지션 관리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08년에는 해외수입수요 약화, 통화 강세 및 실질임금 상승으로 수출증가율은 둔화되고 자본재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상품수지는 전년 대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유럽·기획조사팀장 조 양 현  
 (☎3779-6663) yhjo@koreaexim.go.kr